

INTERVIEW

CITIZEN'S FOREST

자연의 질서에 지배받는 숲속에서 시민의 권리가 힘을 발휘할 리 없듯
박찬경의 작품 '시민의 숲'에 갇힌 시민들의 모습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 만약 숲이 인간이 만든 제도 바깥에 위치하게 된다면
그것은 욕망의 장소이거나 원혼이 맴도는 신성 영역일 것이다.

PHOTOGRAPHY ANDREAS MEICHSNER
WRITER YOO BYUNG SEO

누군가에게 흑백 영상은 지나간 시간을 의미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좀 더 실용적인 의미로 작용한다. "디지털카메라의 크리스피한 화면을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다른 이유가 더 큼니다. 꿈처럼 몽롱하고 비현실적으로 작품이 보여지길 원했습니다." 세 개로 이어 붙인 거대한 화면이 어느새 가로로 긴 하나의 영상으로 전환된다. 군악대처럼 보이는 일군의 남자들은 해골바가지를 뒤집어쓴 채 숲속 어딘가에서 또 다른 어딘가로 이동하고 화면의 속도는 숲속보다 더디다. 아트 바젤 언리미티드 Unlimited 부문에 초청된 <시민의 숲 Citizen's Forest>(2016)은 원혼이나 악귀보다 무의식이나 정신분열이 훨씬 익숙한 서구 관객의 눈에 이질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북지 차원에서 도시 내부에 조립된 인공 자연으로써가 아니라면 숲은 대단히 음험한 공간이다. 일레로 마르퀴 드 사드 Marquis de Sade의 악명 높은 저작 <소통의 120일>(1785)은 구약성서의 창세기를 인용해 이를 엮기적인 욕육의 현장으로 재현하는데, 사드의 소름이 위치하는 곳이 바로 바젤 인근의 검은 숲이다. 자연의 질서에 지배받는 숲속에서 시민의 권리가 힘을 발휘할 리 없듯 '시민의 숲'에 갇힌 시민들의 모습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 만약 숲이 인간이 만든 제도 바깥에 위치하게 된다면 그것은 욕망의 장소이거나 원혼이 맴도는 신성 영역일 것이다. 사드의 숲이 욕망의 장소가 될 때,

'시민의 숲'은 인간의 제도 밖에 있는 신성 영역처럼 보인다. 화면에 등장하는 머리 없는 사람, 하지만 머리가 없다고 욕망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머리 없는 신체의 격렬한 욕정, 신성 영역에서 벌어지는 오욕의 현장은 모두가 겪어낸 한국 현대사의 특정한 장면들과 겹친다. 그렇다면 지금 보이는 이 장면은 알레고리일까? 기이한 움직임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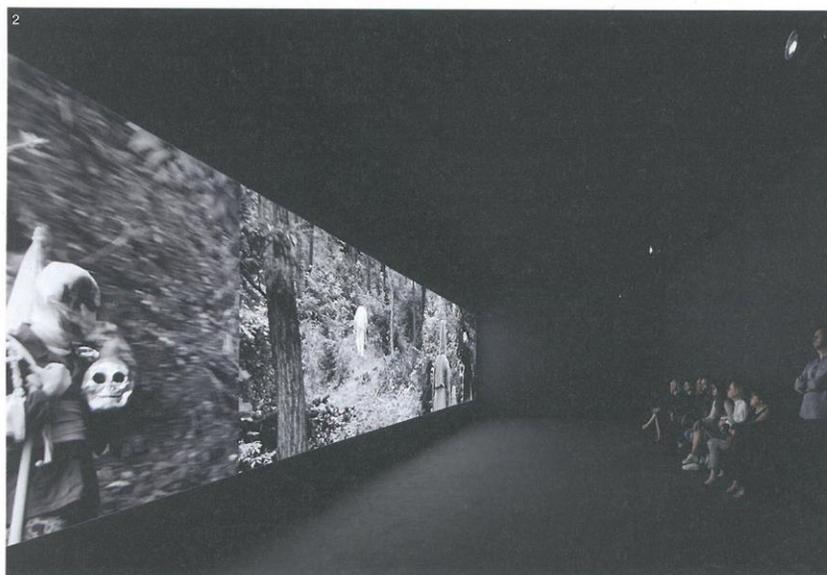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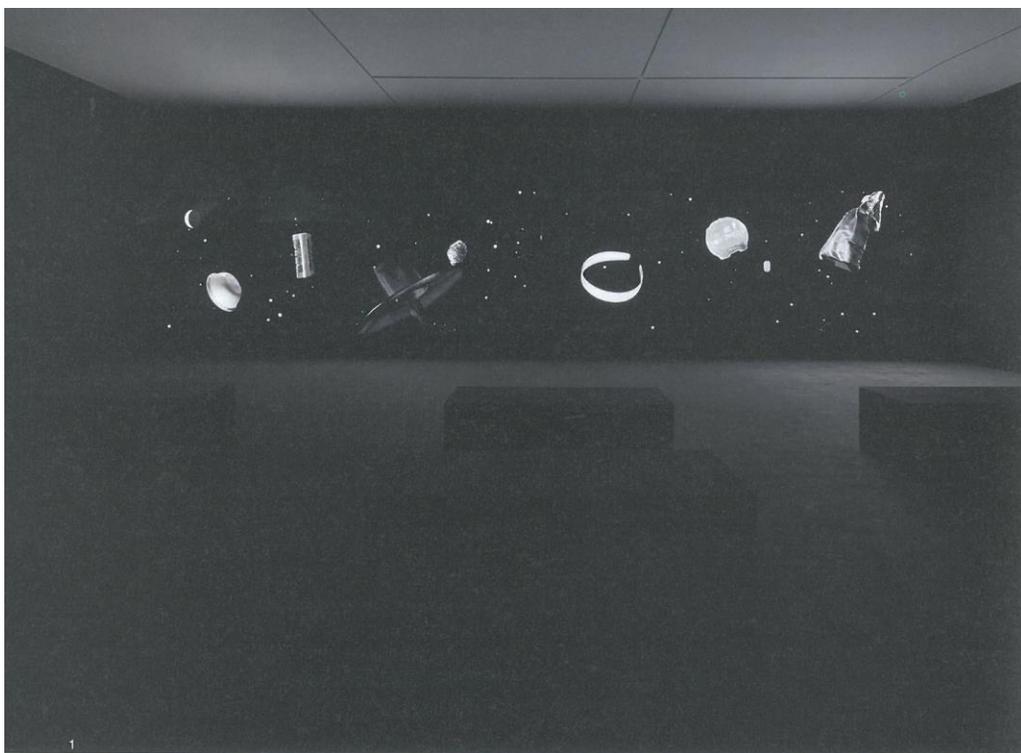
관객의 호불호는 Full HD 프로젝터의 정세도만큼이나 선명하다. 두 발이 묶인 채 의자에 결박된 관객을 상대하는 극장이나 단 하나의 장면으로도 관객을 유혹할 수 있는 그림보다, 전시장에 설치된 영상 작품은 확실히 좀 더 적극적인 관객성을 요구한다. 떠난 사람도 있지 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다. 특히 시간의 차원 에 새겨진 예술 작품에 있어 관객의 인내는 곧 심리적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평면 위주의 전시가 될 수밖에 없는 아트 페어지만 변화의 조짐은 뚜렷하다. 언리미티드 부문만을 놓고 본다면 이러한 변화는 더욱 도드라진다. 영상 설치 작품의 수는 정량적으로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존 아캄프라의 'The Airport'(2016), 더그 예잇컨의 'Underwater Pavilions'(2017), 마이크 켈리의 'Gospel Rocket'(2005) 등 다수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마이크 켈리의 'Gospel Rocket'이 일상적 의례의 낯선 지점을 포착해 제의적 광기와

유사 지점을 시각화했다는 면에서 '시민의 숲'과 만난다면 스텐리 큐브릭과 테오 앙겔로풀로스의 영화를 연상케 하는 존 아캄프라의 영상 'The Airport'(2016)는 역사적 사실을 질료로 당대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한다. 물질성이 없다고 해서 수공예적 노력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절대적인 인내와 고통스러운 작업 과정 끝에 탄생한 데이비드 클레어보트의 작품 'The Pure Necessity'(2016)처럼 박찬경의 '시민의 숲'도 지난하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 탄생했다.

"VFX(Visual Effects)가 많은 작업이에요. 편집도 오래 걸렸고 무엇보다 음향에 공을 꽤 들었어요. 공간의 크기나 건축적 재질에 따라 결과물이 많이 다르므로 현장 조건에 따라 미세한 조정을 거쳐야만 하죠." 엠비소닉시스템으로 구현된 '시민의 숲'은 확실히 소리가 작품의 중요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제주와 진도 지방의 쇠깎고 일부를 차용했지만 작품의 소리는 관객의 감정을 고조시키거나 특별한 정감을 연상케 한다. 기보다 아무런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일종의 노이즈에 가깝다. 언젠가 자크 아탈리는 새로운 음악의 탄생이 새로운 체제의 등장에 우선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탈리의 지적대로라면 생경해진 소리 앞에서 우린 무엇을 잊고 살아왔는지에 대해 반추해볼 게 된다. 그리고 보니 '시민의 숲'의 화면은 피터르 브뤼헬 Pieter







1 국제갤러리에서 열린 박찬경 개인전 <안녕, 안녕, FAREWELL>(2017)의 설치 장면. 사진 속 영상 작품은 '시민의 숲 CITIZEN'S FOREST (2016)'. 2 아트 바젤 2017의 언리미티드 부문에 초대된 작품 '시민의 숲 CITIZEN'S FOREST (2016)의 설치 장면. 3 박찬경 작가는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닌다. 작가가 손에 쥔 카메라는 라이카의 흑백 전용 디자인 모델 M MONOCHROM. 작가의 친형인 박찬욱 감독이 선물한 것이라고. 작가는 이외에도 콤팩트 카메라의 형기 중 하나인 미놀타 TC-1 모델을 필름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4 '시민의 숲 CITIZEN'S FOREST (2016)의 스크린 캡처.

“ 화면에 등장하는 머리 없는 사람, 하지만 머리가 없다고 욕망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머리 없는 신체의 격렬한 욕정, 신성 영역에서 벌어지는 오욕의 현장은 모두가 겪어낸 한국 현대사의 특징한 장면들과 겹친다. ”



Brueghel de Oude(1525-1569)의 평면을 연상시킨다. “두루마리 그림이나 산수화처럼 보였으면 했어요. 그림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입체적으로 장면화시킵니다. 가까이서 보고, 멀리서 보고, 부분적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보는 식으로 말입니다. 영상은 이런 방식을 좀 더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회화의 역사에서 다중 시점의 등장은 그 전과 이후를 구분할 정도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모방에서 재현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일종의 번국점으로 작용한 서구 예술사의 문제지 동양화에서의 역사는 사뭇 다른 식으로 전개된다. 동양화에서의 색은 보는 이의 감정을 현혹한다고 해 경시된 측면이 있지만, 선은 화자의 지적, 인지적 역량이 오롯이 표상된다고 간주되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졌다. 선이 그림의 중심이 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 자체. 오로지 선의 존재로 귀결된다. 우리의 그림은 대개 언제나 몽롱하고 부정확함을 통해 적확함을 이야기해왔는데 그것은 그림이 평면의 표면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몽롱함은 잠음과 만났고 흐릿한 화면에서 명확한 세계가 완성된다. 뿌연 안개 속에 갇힌 운전자가 신경을 집중하여 전방을 응시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세 개로 길게 이어 붙인 화면은 영화보다 넓고 그림보다 빠르다. 자연을 멀들던 화면은 갑자기 우주로 뒤바

뀌고 민속학적 관점에서 다소 통속적인 사물들이 마치 행성같이 등장해 서서히 자전을 시작한다. “일종의 맥거핀 MacGuffin(영화 등의 줄거리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마치 중요한 것처럼 위장해 관객의 주의를 끄는 일종의 트릭)으로 봐야겠죠. 출처가 있는 맥거핀” 자전하는 물체들의 회전은 처음에는 문맥을 그 다음에는 의미를 떨어낸다. 그리고 천천히 점점 사라진다.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지 않듯 보이는 모든 것이 의미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찢어진 그림의 합쳐진 형태가 콜라주 Collage라든 분절된 형태들의 총동은 몽타주 Montage이다. 조각적 차원이 아닌 회화적 차원에서의 총동. ‘시민의 숲’에서 그림 같은 화면들이 총동하며 의미를 짚어내고 있다. “원래 준비하고 있던 내러티브 영화의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우연한 계기로 작품 제작 지원을 받았고 그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단편적인 요소들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2016년 아트선재센터의 지원으로 제작에 돌입한 ‘시민의 숲’은 타이베이 비엔날레의 추가 지원으로 완성되었다. “작품이 완성되었을 당시 아트선재센터가 개보수 공사 중이었어요. 처음 공개된 것은 타이베이 비엔날레였습니다.” 언리미티드에 ‘시민의 숲’을 출품한 국제갤러리 서울관에서는 박찬경 작가의 개인전 <안녕 안녕, FAREWELL>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시장에선 역시 ‘시민의 숲’이 전시되고 있다.

시간이 곧 공간이고, 공간이 곧 자본인 아트 페어에서 특정한 작품에 무제한의 공간을 허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검증의 단계가 철저하다는 의미다.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다. 작가는 아트 바젤 2016에도 ‘Flying’(2005)을 출품한 바 있다. 당시 ‘Flying’은 행사의 필름 부문에서 선보였는데, 이는 1년 사이 아티스트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품 관련한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에서의 반응도 뜨겁네요.” 갤러리스트들의 의례적인 과정을 고려하더라도 ‘시민의 숲’으로 모아지는 관심은 주목해볼 만하다. 한편 언리미티드의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 지아니 예체는 ‘시민의 숲’을 수보드 굿터의 ‘Cooking the World’(2017), 바바라 크루거의 ‘Untitled(Our people are better than your people)’(1994/2017), 크리스 버든의 ‘Ode to Santos Dumont’(2015)과 함께 언리미티드 색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작품으로 소개하고 있다. H

EDITOR 정색영 DESIGN 임재희